

데이비드 하워드 박사, 조슈아-루스, 19회기, 여호수아 20-21장 레위 도시와 도피 도시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이것은 19회기, 여호수아 20-21장, 레위기와 도피성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상속 재산 분배 또는 토지 분배 부분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의 마지막 두 장인 13장부터 31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복습하자면 13장입니다. 19까지는 각 지파에 분배가 주어졌습니다. 13장, 여기 이 지도에서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지파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here를 따라 가나안 땅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요단강 동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두 지파 반(여호수아 13장)이 될 것이고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강 서쪽에 정착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아래 유다와 그 나라 중부 주요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20장과 21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도시에 전념합니다. 우리는 이전 부분에서 특정 영토를 받지 못한 레위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에 33절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 지파들의 기업이 거기서 끝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만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의 특권과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그들의 유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슷한 구절인 18장 7절에서 레위인은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므로 너희 가운데 분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화제, 제사장 직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상속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개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장과 21장에 이르면 이제 도시의 분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레위인의 성읍들에 관해 말하는 장인 21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더 큰 세트예요.

그리고 20장은 더 작은 세트입니다. 이들은 도피성이라고 불린다. 레위인의 도시는 48개이며 모든 지파에 흩어져 있으며 각 지파당 4개에 가깝습니다.

레위인의 도시가 다섯 개를 받는 두 지파가 있고, 그에 따라 세 개만 받는 두 지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른 점에서는 레위인은 지파당 네 명씩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12를 4번 곱하면 48입니다.

반면에 레위인의 성읍들은 죄송합니다. 반면에 도피성은 그 일부입니다. 여섯 개의 도피성은 레위인의 도시입니다. 이 사건은 21장에도 등장하지만 곧 다루게 될 다른 유형의 도시입니다.

그럼 먼저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도피성이라 불린다. 그 중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작해야 할 곳은 출애굽기 2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21장을 가지고 가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게 하시면 내가 그가 도망할 곳을 너희에게 지정하리라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의로 계획된 살인이 있을 경우 사형이 선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면, 살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 자체는 동기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피신할 곳을 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호수아 20장은 그러한 장소가 무엇인지에 관해 우리가 읽는 곳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쳐서 궤계로 죽이려 하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 데려가서 죽게 하라. 그래서 그것은 누군가가 제단에 있으면 제단에 매달리면 그들을 위한 보호와 성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그를 거기에서 데려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열왕기상에는 누군가가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제단 뿔을 붙잡고 있다는 언급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에는 이에 대한 두 가지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이러니한 언급이 있습니다. "내가 제단 뿔을 꺾겠다."

즉, 나는 너희가 피난처를 얻을 수 있는 곳을 모두 빼앗아 갈 것이다. 아모스 때 이스라엘은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숨을 곳이 없고 도망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처벌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은 우리에게 앞을 내다보는 도피성에 대한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선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레위의 성읍들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21장에 해당합니다.

그런 다음 19절부터 29절까지는 이 도피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섯 성읍을 선정하여 너희를 위한 도피성으로 삼고 무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하게 하라

그곳은 복수자로부터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회중 안에 서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됩니다.

이것이 서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찾는 여호수아서 20장의 배경입니다. 이제 그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 20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명하여 부지중에 또는 부지중에 사람을 치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게 하라. 너희에게는 피의 복수자로부터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사물의 의도하지 않음에 대한 생각은 중요합니다.

의도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그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은 이러한 그라데이션과 이러한 것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법의 민감성을 보여줍니다. 피의 보수자는 와서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복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관점이 있었고, 때로는 이러한 복수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의 보수자는 구약에서 민수기 35장, 신명기 12장, 사무엘하 14장에서 딱 네 번만 언급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불법이거나 준법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적인 복수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어는 고엘 이다. 하담 .

이는 다른 맥락에서 익숙한 용어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친척 구속자로 번역되는 것을 언급하는 룯기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행해야 할 특정 의무가 있는 일종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더 큼니다. 우리는 룯기에서 가족 재산 등을 상환할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긍정적임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피의 복수라는 개념은 피의 복수자가 사적인 복수를 할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에 대한 복수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은 원수 갚는 것은 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갚으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것은 이사야 34장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물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도 그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은 이 피의 보수자가 특정한 조건에서만 사람을 죽일 자유가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첫째, 그들이 도피성에서 모험을 떠났을 경우입니다.

즉, 그들은 보호의 성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범했다면요. 민수기 35장을 보면 그 점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피의 복수자는 사적인 복수가 아닌 사회의 복수, 즉 하나님의 복수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 20장 4절에서 6절, 즉 이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이 범죄자가 도피성에서 성소를 찾을 수 있는 조건과 그들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어떤 유형의 재판소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무죄를 변호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살인자는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도망치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대제사장과 그 사람과 범죄를 일으킨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시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제 그것으로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의 모형론적 관점에서 볼 때, 옛것을 되돌아보면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몇 가지 유형학적 연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것의 즉각적인 효과와 즉각적인 메시지는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가 자신의 주장을 주장한 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죽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죽음이 아니지만, 대제사장의 죽음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집에 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지만, 그의 행동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실수로라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해방을 초래하는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구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주위를 순환하고 있습니다.

즉, 도피성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은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질문은 고의적인 죄, 살인이나 다른 죄, 그리고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한 죄에 대한 구약성서의 용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목제, 연속제, 속죄제 등이 있는 레위기의 처음 일곱 장의 희생 제도에는 실제로 고의적인 죄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의도하지 않은 종류의 죄를 짓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에는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본토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간에 반항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누구든지 본토인이든지 앞서 말한 게르라 하면 이방인이니라. 본토인이든지 게르든지 불순히 죄를 짓는 자는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니라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합니다. 31절, 그 사람은 여호와와 말씀을 멀리하고 그의 계명을 어겼으니 반드시 멸망을 당하고 그 죄악이 그에게 그대로 있으리라. 그리고 국제 버전에서는 반항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할 때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로 손을 높이거나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주먹을 흔드는 일종의 이미지와 거의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도전하고, 모독하는 등의 죄를 짓는다면,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장 때문에 일부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구약의 희생 제도보다 신약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월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구약에서는 고의적인 죄에 대한 용서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이제 대답을 통해 나는 먼저, 물론 그리스도의 희생이 모든 유형과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구약의 희생보다 무한히 우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특히 7장부터 10장까지에서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제한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에서 고의적인 죄가 속죄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대답은 확실히 '예'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의로 범한 많은 죄의 예를 발견하게 되며, 그러면 구약의 어떤 신자도 용서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범죄하고, 여호수아와 다윗과 밋세바가 있습니다. 확실히 다윗이 밋세바와 간음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우발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며, 밋세바의 남편을 살해한 일 등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두 가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번제에 대한 논의인 레위기 1장을 보면, 바로 그 단어 자체가 이것을 나타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는 그를 속죄하기 위한 번제물을 받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누군가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4장 19절과 20절은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기 위해 소제물과 함께 제단에 번제물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구약에 고의적인 죄에 대한 속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수기의 한 구절을 보는 것조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민수기 5장을 보시면 고의적인 죄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수기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민수기 5장 6절에서 사람이 여호와를 배반하여 범하는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배반한다는 말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아간과 관련하여 이미 이야기한 단어인데, 이스라엘이 바친 물건에 관하여 여호와께 믿음을 배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훔친 사람은 아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결혼 불륜의 맥락에서도 나타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같은 지점에서 남자나 여자가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의 믿음의 언약을 깨뜨리는 예가 될 수 있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여 그 허물 곧 그 허물을 깨달으면 그 범한 죄를 자복하고 그 잘못을 온전히 갚되 오분의 일을 더하여 그 잘못된 사람에게 주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다음 친족이 없으면 계속해서 회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범주의 죄는 믿음을 깨뜨리고 대부분은 고의적이라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이지 않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뉘개, 즉 희생 뉘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차이점은 구약성서에서는 높은 손으로 지은 죄, 즉 반항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님께 의도적으로 범한 죄에 대한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을 내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한다면 분명히 여기에는 죄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죄에도 용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격려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호수아서 20장의 마지막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7절부터 8절까지 여섯 성읍을 따로 정한 것인데 그 중 세 성읍은 요단 동편의 트랜스요르단 지역에, 세 성읍은 요단 서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방식을 보면 어느 것도 하루의 산책 거리, 도착하는 데 하루의 여행 거리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성소를 찾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 땅 전역에서 접근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9절은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곧 게르와 타국인과 타국인을 위하여 정한 성읍들이니 무릇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보복하는 자의 손에 죽임을 면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를 흘리라.

그것은 아름답고 매우 흥미롭고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사사기나 사무엘서나 열왕기의 서술적 이야기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했던 성경 뒷부분에 이에 대한 몇 가지 예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일이 실제로 실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실제로 실행된 적이 없거나,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 하에 있는 성경 기자들은 우리를 위해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는 원칙이 있으며, 이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며, 기준을 갖고 인간 생명의 가치를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지만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한 자비도 필요합니다.

그들은 성소를 찾고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21장입니다. 여섯 개의 도피성은 레위인의 도시인 더 큰 도시 집합의 일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21장으로 가서 레위 사람들의 성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목하게 될 것은 21장인데, 처음 세 절은 누군가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땅을 요구하러 오는 마지막 작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갈렙과 갈렙의 딸 약사와 요셉 지파인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전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레위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자르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나아온지라 21장 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들.

따라서 여기서 공식적인 설명을 확인하세요. 제사장 엘아자르,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그래서 임명된 두 지도자, 즉 제사장과 다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깔끔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것은 토지 분배 목록을 통해 우리가 쪽 볼 수 있는 스프레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차지하려고 달려드는 오클라호마의 땅 강탈이 아닙니다. 모두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는 13장과 19장에서 모든 증거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2절, 그들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목초지와 가축과 함께 거주할 성읍들을 주라 명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기업에서 다음과 같은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제비를 뽑고 그 제비에 따라 도시를 분배하는 것과 같은 장의 나머지 부분을 봅니다. 거의 꿰뚫을 수 없는 목록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일반적인 개요가 있습니다.

4절에는 고탓 자손의 가족 중에서 제비를 뽑은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의 자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게르손 자손 과 므 라리 자손과 본래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니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에게 제비 뽑아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땅이 제비로 분배된다는 생각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그것은 구약성서의 뒷부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조율하시는 일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운명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사위를 던지거나 그와

유사한 것을 통해 도박을 단념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자신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신 방법의 일부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이것에 대한 흥미로운 각주와 부수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많은 것을 뜻하는 주요 단어는 고랄(goral), 고랄(goral)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유대인들이 공격을 받을 날 등을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pur, pur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에스더서의 전체 이야기나 그 일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pur 라는 단어가 goral이라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부지에 대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더서가 단지 허구이거나 그 일부가 허구라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1960년대, 아마도 70년대 초반에 메소포타미아 어딘가에서 발굴 중에 점토로 만들어진 각 면이 약 2~3인치 정도 되는 작은 입방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어, 아마도 페르시아어에서는 pur, pur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단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많이 다른 단어였다는 정말 흥미로운 성경 외 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이 주의 깊은 분배를 통해 그들의 모든 성읍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지파 전체에 분산되어 본질적으로 지파당 네 개의 레위인 도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파들 자체에서 일종의 누룩과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랬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부패한 경우가 많았고 대제사장도 왕만큼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신성한 영토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퍼져 있었다.

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콜롬비아 선교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아마도 19세기 선교사들의 전형적인 고정관념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어디든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이러한 선교 단체를 설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친절하고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주변의 거룩하지 않고 신이 없는 지역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고, 부모님도 선교사님과 함께할 수 있었던 행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선교단체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컬럼비아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들이 교회나 다른 것들을 통해 가졌을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이웃과 친구를 사귀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그런 종류의 좋은 예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여호수아 21장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의 도시들에 관한 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땅 상속의 마지막 장, 땅 분배 목록 섹션 13부터 21까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1장의 마지막 세 구절은 이 지점까지 책 전체를 마무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책에서 발견되는 모든 주요 주제를 포착합니다. 그럼, 그것을 살펴보고 간단하게 분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선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여기 이 구절의 단 몇 단어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속의 개념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느니라. 이 책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휴식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서 안식을 주시옵소서.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을 대적한 자가 없으셨느니라. 그래서 그것은 1장 5절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여호수아를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이루어졌느니라.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중 하나도 어긋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흥미 롭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이 약속의 한 단어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로 FELL이라는 단어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요점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말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착륙했고 흡수되었습니다. 그들은 받았습니다.

어떤 말도 여분의 낭비로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 즉 사무엘이 말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무엘상 3장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다음 사람으로 임명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를 만났고, 하나님은 밤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 가문에 불행하게도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19-20절 마지막 부분에서 사무엘을 평가하면서 이가 다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여호수아에서 본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나 단어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두 곳에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단에서부터 밧세바까지, 북방에서 남방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와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자로 알았더라.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놀라운 결말입니다. 그가 땅을 주셨고, 적들을 구원하셨으나 그의 약속은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속 섹션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훈계는 22~24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룻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이것은 19회기, 여호수아 20-21장, 레위기와 도피성입니다.